‘스몰 스텝 전략’을 넘어서

(학개 1장 1절~15절)

1. 다리오 왕 제이 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2.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3.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4.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 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5.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6.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삯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오늘 말씀 중심으로 <‘스몰 스텝 전략’을 넘어서>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스몰 스텝 전략’을 넘어서

스몰 스텝 전략이란 UCLA 의과대학의 임상심리학 교수인 로버트 마우어(Robert Maurer)가 22년간의 연구결과로써 소개한 자기계발방식입니다. “가장 단순하고, 가장 쉬운 것부터 시작하라”는 모토 아래에 목표를 달성하는 유일한 길은 작은 일의 반복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뇌의 속성에 대한 연구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뇌의 대뇌피질에는 편도체와 변연계라고 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이 기관은 변화를 극도로 싫어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큰 도전이나 계획에 두려움과 부담감을 느끼게 하는 원인이 됩니다. 두려움과 부담감에 의한 지속적인 압박이 이루어지면 대뇌피질의 기능은 저하됩니다. 이럴 때에는 일 할 의욕도 생기지 않고 일을 해도 성공할 확률이 떨어집니다. 따라서 뇌를 정상적으로 활용하여 일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편도체와 변연계가 알아채지 못할 정도로 작은 일부터 실천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 번에 큰일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작은 일을 반복함으로써 큰 성과에 도달하는 것이 바로 스몰 스텝 전략입니다.

예를 들어 사업하는 사람이라면 “금년에는 몇 천만 불의 큰 계약을 따낼 수 있을 것인가?”를 놓고 계속 고민할 것이 아니라 일단 “주차를 제대로 해야겠다, 오늘은 1분을 더 걸어야겠다.”

는 실패할 확률이 적은 일부터 성취해나갈 때에 큰 목표에도 도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문제가 생겼을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해결방안을 생각하기에 앞서 작은 해결방안부터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이 스몰 스텝 전략은 세부적으로는 여섯 단계로 나누어집니다만 대략적으로는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습니다. 두려움과 부담감을 가질만한 큰 목표를 갖지 말고 편도체와 변연계가 부담을 느끼지 않을 정도의 작은 목표를 반복적으로 수행함으로써 대뇌피질의 기능저하를 막고 결과적으로는 큰 성공에 도달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와 비슷하게 긍정심리학의 원조라고도 할 수 있는 로버트 쉴러(Robert H. Schuller) 목사의 봉우리 정복 원리가 있습니다. 먼저 작은 봉우리를 정복하면 그보다 큰 봉우리를 정복할 수 있는 심리적 여건이 마련된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큰 봉우리를 정복하려 한다면 무척 어렵지만 작은 봉우리부터 정복하다보면 언젠가 에베레스트같이 큰 봉우리도 정복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몰 스텝 전략과 봉우리 정복 원리를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에서 학개 선지자가 어떤 삶을 제안하고 있는지에 대해 살펴볼 것입니다. 우선 본문을 살펴보기 전에 모세를 예로 들어봅니다. 모세가 받은 소명은 어마어마하게 큰일이었습니다. 당시 초강대국이었던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생활을 하고 있던 이스라엘 민족을 구해내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출애굽의 대업을 이루기 위해 준비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삶은 스몰 스텝 전략이나 봉우리 정복의 원리에 부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모세는 성공했고 우리는 그 삶에서 승리하기 위한 전략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모세의 전략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모세는 바로 왕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전했을 뿐입니다. 그렇게 하는 동안 열 가지 재앙이 일어나고 홍해가 갈라지고 광야에서 사십 년을 살아가는 엄청난 사건이 일어납니다. 물론 이 일들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만 모세라는 인물을 통해 이러한 일들이 나타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모세의 마음가짐은 홍해 앞에서 위기에 처했을 때에 잘 드러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을 보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고 하였습니다. 자신의 전략을 백성들에게 이식해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지켜보는 모세의 전략적 특징은 하나님이 삶을 사시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있어서는 우리가 가진 문제가 크던 작던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문제가 크면 부담을 느낍니다. 스몰 스텝 전략이나 봉우리 정복 원리가 모두 이러한 부담감을 염두에 두고 작은 일부터 해나가라는 것이었음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담감은 내가 해야 한다고 여기기 때문에 의미를 갖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맡아서 살아가신

다는 확신이 있다면 문제가 크던 작던 상관이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모세의 자세는 스몰 스텝 전략 정도가 아니고 스몰리스트 스텝 전략이라고 할 만합니다. 스몰리스트(smallest)는 '작다'는 뜻의 최상급입니다. 다시 말해 가장 작은 단계로부터 시작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일이란 바로 아무것도 안하기로 작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하나님께서 삶을 전적으로 살아주시는 인생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학개 선지자는 오늘 본문을 통해 바로 이 스몰리스트 스텝 전략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선민은 바로 스몰리스트 스텝 전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기로 작정하는 이 전략을 취할 때에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일은 크든 작든 하나님이 해나가십니다. 큰일이라고 대단하지도 않고 작은 일이라고 대수롭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크든 작든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통일은 우리민족의 오랜 숙원입니다. 한편 내가 오늘도 숨 쉬며 살아가는 것은 통일에 비하자면 대수롭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대한민국의 통일을 나를 숨 쉬게 하시는 것보다 어려운 일로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미국이나 러시아나 중국과 같은 대국들을 하루아침에 망하게 하시는 일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하시느냐 하시지 않느냐의 문제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사시는 삶으로 만들 수만 있다면 그것이 가장 큰 성공이 될 수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 소개되고 있는 스몰리스트 스텝 전략입니다. 이것이 가장 작은 전략인 이유는 손가락 하나 까딱할 필요가 없는 오직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본문은 포로에서 해방되어 고향으로 돌아온 선민들에게 주어진 예언의 말씀입니다.
남 왕국 유다는 BC.586년에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 와중에 백성들은 나라가 완전히 망하기 전인 BC.605년부터 포로로 잡혀가기 시작해서 BC.597년에 2차로 잡혀가게 되고 나라가 망하게 되는 BC.586년에 다시 3차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리고 1차 포로이송으로부터 대략 70년이 지난 BC.538년이 되어서 바사 왕 고레스는 해방을 선포하고 예루살렘 성전 재건을 허락합니다. 포로생활을 끝낸 선민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BC.536년부터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주변에 자리 잡고 살고 있던 사마리아 사람들의 집요한 방해를 받게 됩니다. 고레스 왕이 죽은 이후의 왕들은 이스라엘을 비롯한 이민족들에 대해 방임하는 자세로 일관했기에 사마리아인들의 방해공작은 효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한편 성전을 재건하고자 하는 선민들에게 방해가 되었던 것은 사마리아 인들뿐만이 아니었습니다. 70년 동안 포로생활을 하고 돌아오자 예루살렘 성전은 이미 폐허가 되었고 설상가상으

로 흉년까지 겹쳐 먹고살기도 힘든 지경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놓인 선민들의 태도가 2절에서 잘 드러납니다.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라고 하였습니다. 이들에게는 성전 건축을 미룰 명분이 있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방해하는데 당장 머물 집도 없고 밭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흉년이 겹쳤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성전건축에 힘을 기울인다면 도무지 먹고 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잘못된 핑계였습니다. 본문의 학개 선지자의 예언은 성전건축이 중단되고 16년이 흐른 시점에 주어진 예언입니다. 4절을 보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라고 하였습니다. 당시에는 돌이나 나뭇가지를 이용해 집을 짓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런데 판벽한 집은 나무판자를 이용해서 지은 집입니다. 다듬어진 나무판자를 이용한 집은 비싸고 호화로운 집이었습니다. 그만큼 열정적으로 힘을 쏟아 부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포로귀환해서 모두가 이런 좋은 집에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다만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먹고 살기 힘들어서 성전건축은 미루었으면서 자신들의 집을 짓는 것에는 마음과 힘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또 학개 선지자는 5절에서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행위로 번역된 히브리어 "데레크"라는 단어는 "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삶에 대한 길을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선민의 삶의 길에서는 성전건축이 우선시 되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성전건축이 집을 짓고 밭을 일구는 것보다 우선시되어야만 했던 이유는 바로 성전이 선민이 살아가야 할 모든 길의 시작이었기 때문입니다. 성전 없는 선민의 삶은 존재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직장에 다니고 있습니다. 이때에 선민으로써 직장에서 우선으로 해야 할 일은 성전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돈 문제가 생겼을 때에 이방인들은 직접 대처할 것입니다. 그러나 선민은 돈 문제가 일어나도 마음에서 성전을 바라보기를 우선시하는 자들입니다. 선민이 걸어가야 할 길은 이미 하나님께서 지도처럼 그려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걷는 출발점이 바로 성전입니다.

성전에서 멀리 떨어진 갈릴리 지방에 사는 선민이라도 그 삶의 내용은 다르지 않습니다. 몸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떨어져 있으나 마음은 성전으로 보내서 삶을 성전으로부터 출발하도록 해야만 했습니다. 그럴 때에 삶의 문제들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길을 따라 걸어가며 해결 될 수 있습니다. 자녀에게 문제가 있을 때에 이방 사람들은 직접 개입을 통해 해결하고자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모이기 이전에 선민이기에 자녀 문제의 해결 또한 성전에서 시작됨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6절을 보면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삯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

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라고 하였습니다. 열심히 일을 하지만 밑 빠진 독에 물붓기와 같다는 것입니다. 선민들은 먹을 것도 없고 돈도 없으니 성전건축을 멈출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생각과는 반대로 성전을 건축하려 하지 않기 때문에 이들이 환경과 삶의 여건은 열악해져서 먹을 것도 없고 쓸 것이 없어지게 된 것이라고 거꾸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대체 성전건축이 이토록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성전 존재의 의미에 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이름을 두는 곳입니다. 그리고 선민은 하나님의 이름만을 마음에 붙잡는 자들입니다.

사람은 마음에서 붙잡은 이름을 실제로 얻고자 합니다. 돈이라는 이름을 붙잡았다면 세상으로 뛰어나가 돈을 벌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대통령이라는 이름을 붙잡았다면 대통령이 되기 위해 정치활동을 시작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았다면 하나님을 갖고자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세상이 아닌 하늘에 계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마음에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았다면 실제로 하나님을 갖기 위해 하늘을 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하늘로 향하게 하는 곳이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우리에게 돈 문제나 자녀 문제나 직장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러한 일들에 대해 마음을 쓸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의 기쁨과 만족은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일들은 하나님이 해나가시기만을 바랄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위해 성전이 존재했습니다.

선민은 이 세상에 대해서는 살아갈 수 있는 여력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을 붙잡던 마음을 성전의 상번제 어린 양과 함께 죽임으로써 하나님의 이름만을 붙잡게 된 자들입니다. 이러한 자들의 삶에서 이 세상은 하나님이 사시게 됩니다. 이것을 해나가는 것이 바로 이 땅에서의 삶을 대하는 스몰리스트 스텝 전략입니다.

우리의 삶의 출발점은 하나님으로 가득 찬 마음 상태가 되어야만 합니다. 물론 하나님으로 마음이 충만해지는 것은 우리의 자의대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와 하나님과 만남은 공식이나 원리가 아닌 인격적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으로 가득 찬 상태가 될 수 있는지는 하나님의 계획에 달렸습니다. 반드시 구할 때마다 하나님으로 충만해지기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분명한 것은 주님을 따라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자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스몰리스트 스텝 전략을 고수해야만 합니다. 내가 세상에서 하는 모든 일은 나의 기쁨과 만족과는 상관이 없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직장에도 가야하고 부모로써 자녀도 키워야 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이 세상의 모든 이름에 대해 죽은 자라는 것을 성전을 통해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 선민들은 성전을 건축해야 했습니다.

예를 들어 밭일을 하러 가는 선민이 있습니다. 이때에 어떻게 성전을 활용할 수 있을까요? 성전에서 드려지는 상번제를 기억하며 “밭일은 내 기쁨과 만족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나는 많은 수확이라는 이름을 붙잡지 않겠습니다. 내 마음은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로 가기를 원합니다. 이제 하나님으로 채워주세요. 제 마음을 하늘에 앉혀주세요”라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이러한 단계를 거치고 밭일도 하라는 것입니다. 물론 밭에 나가서 내가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고백을 함으로써 하는 일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며 뿌린 대로 거둘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선민들은 성전 건축을 미룸으로써 스몰리스트 스텝 전략을 수행할 수 없었습니다. 그 결과 많은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씨를 뿌렸지만 뿌린 대로 거둘 수가 없었습니다.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입어도 따듯하지 않고 아무리 삯을 받고 돈을 모으려 해도 만족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마음이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마음에서 성전을 건축하고 범사에 스몰리스트 스텝 전략을 적용하며 살아가야만 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기쁨과 만족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쁨과 만족이 되시는 분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뿐이시기에 우리의 마음으로 붙잡아야 할 대상도 하나님뿐이십니다.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생각할 것이고 행동하겠지만 마음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한 내가 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 됩니다.
저 또한 이러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결코 제 설교를 통해 많은 사람이 십자가 생활화를 하게 되고 하나님을 붙잡게 되면 좋겠다는 희망과 기대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의 기쁨과 만족은 하나님뿐입니다. 설교가 전해지든 전해지지 않든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매일 새벽 2시 반이면 일어납니다. 저로써는 할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습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성전의 존재 의미가 완성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곧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의미합니다. 십자가 사건을 통해 주님께서 성전을 완성하셨기에 우리는 더 이상 돌로 성전을 지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다니는 예배당 건물이 성전이 아닙니다. 오직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이 우리의 성전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염두에 두고 직장생활도 해나가야 합니다. “나는 주님의 십자가에서 죽고 주님의 부활하심과 승천하심을 따라 하늘로 올라간다. 나의 직장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현장이다.” 이러한 마음가짐을 유지한다면 마음이 하나님으로 차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과 만족을 누리며 생각도 하고 행동도 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스몰리스트 스텝 전략을 시도했다고 해서 단번에 큰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

러나 하나님에 대한 추구는 지속되어야만 합니다. 아침에 한 번 하나님을 갖기를 소원했다면 점심 때 또 하나님 갖기를 소원하세요. 그렇게 매사에 스몰리스트 스텝 전략을 통해서 살아가는 동안 점점 더 하나님에 의한 삶은 이루어져 갈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볼 때에는 똑같이 치열한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삶이 진행됩니다. 내가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가시는 기가 막히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스몰 스텝 전략을 넘어서 스몰리스트 스텝 전략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오늘도 십자가 생활화에 마음을 쏟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범사에 손가락하나 까딱하지 않고 마음으로 기억하면 되는 스몰리스트 스텝 전략을 먼저 수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후의 삶은 내가 생각하고 느끼고 움직임에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점차 바뀌어 가는 축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